



금속 변화와 혁신! 도약하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창간 11주년
24.07.22

13기
VOL.10

발행 : 정진홍 | 발행일 : 2024.07.22.(월) | 전화 : 054-748-3223 | 팩스 : 054-773-9270

프랑스기업 발레오 경주공장 "수탈" 목고할 수 없어 역수입 반대, 경주공장 정상화 요구 투쟁의 파고를 올리다



발레오만도지회의 투쟁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지회 간부들은 7월 9일부터 철야농성을 진행 중이고 조합원들은 7월11일부터 6시간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7월 16일 국회 기자회견과 7월 17일 경주시청앞 기자회견, 7월 18일 현대자동차 정문 앞 집회가 있었다. 발레오 노동자들이 또다시 투쟁에 돌입한 이유는

한국산으로 완성차에 장착되고 있다. 올해 9기 기종 100만대가 수입될 예정이다.

사람이 부족하면 인원을 충원하면 될 일이고 시설이 부족하면 설비 재배치를 검토하고 아무리 이리저리 맞춰도 경주공장에서 생산수량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하면 노-사가 논의해서 수입 포함해서 방안을 논의하면 된다. 경영진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노동자들이 분노를 토해내고 있다.



발레오만도 신시연 지회장은 시민들이나 지역 동지들이 “또 발레오냐 라는 말이 나올까봐 걱정이지만 경주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경주공장을 정상화” 시키자는 것이다.

노조 파괴 10년 동안 발레오노동자 절반이 이미 공장을 떠났다. 350여개의 협력업체가 납품처를 잃는다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

경주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2023년 11월 한 개 기종 3천대를 수입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다. 그런데 2024년에 들어 수입 기종과 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협력업체에서 “라벨갈이”가 목격되었다.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뒤바뀌고 있었다. 지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현대자동차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니 7월12일부터 메이드 인 차이나로 납품하는 것을 현대차로부터 승인받았다고 한다. 라벨 원산지가 중국으로 변경되지만 바코드와 품번은 한국산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결국 중국산 부품은

중국산 부품의 안전성도 우려된다.



프랑스 기업 발레오는 2024년 4월 대구에 자율주행 부품 생산을 위해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공장을 준공했다. 미래차 전환을 위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110명의 신규고용과 연 매출 2천억원 달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분명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경주공장에서는 지난 20년간 기술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2,200억원의 자금을 프랑스로 가져갔다. 대구의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는 다를까?

경주는 공장 부지 일부를 매각하려다 노동자들이 반대하자 보류 중이다. 사원아파트는 이미 매각했다. 경주공장은 말 그대로 “수탈” 당하고 있다.

알짜배기 경주공장은 꺾데기만 남을 판이다.



힘내라! 발레오만도지회! '경주지부가 쏜다! 커피트럭' 진행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30, 금속노조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식당앞에서 지회의 투쟁을 응원하기 위한 <경주지부가 쏜다! 커피트럭> 이 진행되었다. 7월 11일 이후 연일 투쟁에 함께하고 있는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된 행사는 점심시간 전후인 10시 30분 부터 오후 13시까지 발레오 1, 2 공장 앞에서 진행되었다. 일명, ‘커피차’라고 불리는 커피, 라떼, 아이스티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트럭을 이용, 점심시간을 전후로 이동하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게 음료를 제공, 지회의 조합원들의 투쟁을 응원하고 비조합원들의 조직을 위한 기획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경주지부는 7월 22일 월요일, 매각결정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엠에스정밀 지회를 방문해 커피트럭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신규지회 리어코리아지회 2024 단체협약 체결



2024년 3월 12일 금속노조 경주지부에 서른번째로 조직형태변경 결의로 가입한 리어코리아지회가 민주노조로서 4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5월 8일부터 진행된 교섭이 7월 16일 13차 교섭에 와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의견접근 안에 대해 7월 18일 조합원 총회가 진행되었고 투표인원 대비 79.8%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신규지회인 리어코리아지회가 안정적인 설립부터 단협체결까지 무사히 이루어진 것은 금속노조 경주지부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의 힘이 원동력이었다.

이번에 체결된 단협 주요 내용은 “조합활동 전면보장, 기존 계약직 노동자 전원 정규직 합의, 노동강도 완화 및 건강권 확보 방안 명시, 정규직-계약직 임금 차별 철폐, 2026년부터 중앙/지부집단교섭 참가” 등이다. 특히 계약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전 조합원이 함께 요구하고 투쟁한 것과 전 조합원이 2만원을 결의, 동행기금을 조성해 아주산업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사례가 되었다.

리어코리아 전동훈지회장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해 노동강도 완화, 건강권 확보로 일할 맛 나는 현장, 즐거운 현장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

